



### 삼국유사 인물학 여행(遊行)

금관가야 본류가 왜나라로 건너간 까닭은?

1. 가야를 보면 동아시아 정치가 보여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의 삼국 이외에 대발해와 가야연맹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김부식은 가야에 대해 "왕의 말이 무릎을 꿇고 슬프게 울었다"며 가야 연합군에 거 짓 항복한 내물왕 때의 상황 만을 짧게 다뤘다. 이러한 기술은 삼국의 강역을 반도 중심으로 본 김부식 사관의 국부성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말갈 발해' 조목을 두어 '대발해'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또 가야에 대해서는 '오가야'와 '금관성 파사석탑' 조목을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 문종 때 금관 지주사였던 김양일(金良益)이 정리한 <가락국기>를 하나의 조목으로 '간주려 신고(略而載之)' 있다. 일연이 <가락국기> 전체 분량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가야와 세계(世系)를 대체 기록하고 있어 많은 부분을 축약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 가야 '주목'은 <삼국유사>의 미덕

<삼국사기>...발해, 가야 안다뤄

<삼국유사>...발해, 가야 조명

고구려...중국 중심사관 불인정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이들 가야와 대발해 두 제국을 배제시키고 우리 역사를 반도 안에 축소시켜 한국사의 외연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러나 일연은 대안사서인 <삼국유사>에 두 제국을 담아냄으로써 한 민족의 강역을 온전히 담아내려고 했다.

이 점은 '고조선' 조목과 '항가' 류의 수록과 함께 <삼국유사>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광개토대왕'을 비롯한 고구려의 천하관을 고려하면 더욱 크게 다가온다. 고구려의 천하관 내지 세계관을 고려하면 김부식의 반도 중심적 사관을 포함한 종래의 역사관은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대등했던 고구려 입장에서 이후 한반도에서 받아들인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구려는 백제를 제압해 속국으로 만들었듯 뿐 아니라 신라를 구원하면서 신라까지 속국으로 만들었다. 당시 광개토대왕은 신라와 백제를 아울러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나라를 통일한 민족으로 보았기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았을 뿐 통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려(碑麗, 패려, 거란족 일파)

와 왜는 무너뜨려야 될 대상으로 인식해 응대했다.

#### 2. 가야의 신라 침공으로 국제전 시작

가야는 일찍이 신라에 합병했고 금관가야의 본류가 왜나라로 건너가 겨우 일부본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당시 가야 중 금관가야는 철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철기문화를 주도한 강력한 나라였다. 남아있던 금관가야의 지류는 가야연맹에 퍼져 철기 문화가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대가야는 맹주였던 금관가야의 지위를 계속했지만 곧 신라에 흡수됐다. 결국 삼국에 맞섰던 제4의 제국 가야연맹의 존재감은 신라에 귀부한 김유신 계를 제외하고는 정당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가야는 백제·왜와 연합해 신라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남부를 제압하려 했다. 가야연합군이 경주에 밀어닥치자 신라 내물왕은 고구려에게 구원을 청했다. 후연(後燕)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광개토대왕은 내물왕에게 거 짓 항복을 권한다. 고구려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이에 내물왕은 백제(阿莘王)·가야(伊尸王·坐知王=金毗)·왜 연합군에게 거 짓으로 항복했다.

광개토대왕은 대장군 고양에게 보기군(步騎軍) 5만 명을 주어 신라를 지원하게 하게 했다. 고구려 군은 경주 지역에서 가야연합군과 전투를 벌인다. 고구려 군의 승리로 가야 연합군은 경주 포위를 풀고 후퇴하게 된다. 신라의 기사회생은 역으로 인접국인 가야의 위기를 의미했다. 금관가야의 본류는 백제와 왜와 연합하여 '임나가야( 경북 고령 지역)의 종발성에서 신라·고구려 연합군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된다.

광개토대왕은 대장군 고양에게 신라 내물왕을 지원해 가야연합군을 경주 지역에서 제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광개토대왕은 전령을 보내 별도의 지사가 있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했다. 광개토대왕은 가야 연합군의 격퇴에만 목적을 두지 않았다. 광개토대왕은 가야 연합군과의 승전 이후에 벌여질 한반도 남부의 정치변화를 예견하고 미리 포석을 두고자 했다. 광개토대왕은 이 전쟁 이후 신라를 고구려의 지배 하에 두려고 했다.

먼저 그는 신라 민심을 추스르는 주체로 내물왕(奈勿王)을 적합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47년 간 재위에 머물렀던 내물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다. <삼국사기>는 태자 눌지(訥祗)와 왕자 미해(美海), 복호(卜好), 미사흔(未斯欣) 등이 있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이가 어려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았다. 광개토대왕은 당시 고구려 인질로 있던 왕족 실성(實聖)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 실성은 신라 김씨의 시조인 알지(闍智)의 먼 친척으로 제13대 미추왕 동생이다. 적통이냐 아니냐 정당성의 문제는 내물왕 역시 후사가 없는 출해왕(訖解王) 사후 대신들의 추대로 오른 왕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실성이 고구려에 인질로 가게된 이유도 내물왕이 언젠가 자신의 아들들과 왕권을 다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8년간 고구려에서 머문 실성은 자신을 고구려에 보낸 내물왕에게 불만이 있었다. 평소 실성의 성품을 살피고 있었던 광개토대왕은 그를 신라·고구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에게 전공을 세우게 함으로서 왕이 될 명분과 위임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광개토대왕은 자신이 엄선한 정예군 500명을 실성의 호위군으로 삼고 이들에게 '신라왕위 교체'의 특명을 내렸다.

#### 고구려군 승리, 금관가야 폐허

금관가야 본류, 일본 건너가

'임나일본부설' 일본이 조작

신라 실성왕 내세워 속국 삼아

종발성에서의 전투는 고구려 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금관가야의 수도 김해는 폐허로 변했다. 뛰어난 항해술을 지녔으며 평소 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던 금관가야 본류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갔고 <출가야기>(出伽倻記)에서 전한다.

장수왕 2년(414)에 세운 '국강상광개토호태왕비' (國置上廣開土好太王碑)에는 "원래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항상 조공을 바쳤는데 신묘년(辛卯年, 391)에 조공을 바치지 않아 백제와 왜, 신라를 쳐 신민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일본 메이지(明治)정부의 군부는 육군참모본부의 첩보 제리(提理) 가츠라 국장과 첩보원 사코오 중위를 시켜 비문 속 '내도해파'(來渡海波)의 주체를 바꾸어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하로 만들었다'로 조작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경상남도 일대에 설치했다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이다.

#### 3. 금관가야는 일본에서 어떻게 됐는가.

가야의 원류는 부여 기마민족이다. 이들은 선비족(鮮卑族)의 침입을 받아 한반도



김해시 봉황유적지에 있는 가야무사상. 가야는 철기로 무장했지만 당시 강대국이던 고구려의 군사력을 버텨내지 못했다. 신라 침공 후 패배의 여파로 금관가야인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가와치 왕조를 열었다.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해 김해 지역에 정착했다. 그들은 가야 토기를 굽고 철을 생산하여 독자적인 나라를 세웠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는 가야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나라에 철이 나 한과 예맥과 왜 모두가 이것을 사 가며 돈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낙랑과 대방 2군에 공급한다."

가야는 철검과 철기로 무장했지만 동북아시아의 강자였던 고구려의 맞수가 될

수는 없었다.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가야의 이시왕과 그의 아들인 태자 김질(후의 좌도왕)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들은 오사카(大坂)의 '세츠'와 '가와치' 지역에 새 동지를 틀었다. 이시왕을 이은 이는 태자가 아닌 네 번째 아들이었다. <일본서기>는 선왕이 승하하자 태자(金比)가 인척에게 왕위를 양보했다고 적고 있다. 이시왕은 가와치 지역에서 승하해 응신천황릉에 묻혔다. 그 뒤를 이은 넷째아들 인척천황은 이 지역에서 가와치 왕조를 열었다.

가야의 철기는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12시간 동안 녹여 재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 지역에서 출토된 철정(鐵錠)이 가야의 출토품들과 동일하다. 일본에서 신기술 집단의 대표적 부족이었던 하세(土師)는 1000(1200)도를 넘는 고온을 만드는 첨단기술을 보유했다. 그리고 이 고온을 통해 '쇠처럼 단단한 도기'인 '스에키'(soi, 쇠)인 하세기(土師器)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가야에서 건너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서는 "땅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알맞았다. 양잠과 견포(縑布)를 하고 소와 말을 탔으며, 혼인에도 일정한 풍속이 있었으며, 남녀 간에 분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로 장사를 지냈는데(以大鳥羽送死) 이는 죽은 자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고자 함이다"(其意欲使死者飛揚)고 전하고 있다. 가야인들은 새를 천상의 전령으로 믿었다. 경남 고성 지역의 동에서 발견된 4세기 무렵의 제사 유물이

#### 가야의 원류는 부여 기마민족

가야는 앞선 제철기술 가져

일본 건너가 가와치 왕조 열어

금관가야 적통 '왜' 서 이어

'새무늬청동기'(鳥文青銅器)란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스카(飛鳥) 문명을 연 인척천황은 도래인(渡來人)을 상징하는 '모즈'(百舌鳥), 즉 지빠귀들의 수장이었다. 그는 87년 간(455-519, <일본서기>의 313-399년은 조작, <古事記>는 33년 재위) 재위하면서 가와치 왕조를 세워 금관가야의 적통을 왜가야에서 이어갔다.

#### 참고문헌

- 권성로 역주, <삼국유사> (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철 역주, <삼국사기> (동서문화사, 1978; 2010).
-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7)
- 최인호, <제4의 제국> (여백, 2006).
- 역사스페셜, '가야황망의 블랙박스, 철검' (1999, 02, 20)
- 역사스페셜, '고구려 비밀의 문 광개토대왕' (1999, 05, 01)
-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학과,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은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끼여처럼 수백으로 쌓이고 장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는지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어서 출진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 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강릉(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불기 2556년(2012) 임진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 구화종 총무원

## 총본산 구화사

총무원장 석혜성  
부원장 석현진  
총무부장 석지법  
재무국장 석지함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 92  
TEL 054)977-9733 / FAX 054)976-6454